

# “막오른 빅매치”...2018 미리보는 극장가 라인업

### 사극·스타 감독 작품들·화려한 스케일 등 또 다시 시작된 흥행대전으로 스크린 뜨거워

2018년 1월, 또 다시 시작된 흥행 대전으로 연초부터 스크린이 뜨겁다. 올해는 어떤 영화들이 관객의 취향을 저격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게 될까.

◆ 올해도 치열한 여름 텐트폴 시장-PMC·마약왕·신과함께2-인과연

국내 주요 배급사의 텐트폴 무비가 쏟아지는 여름은 올해도 뜨거운 전망이다. 먼저 CJ엔터테인먼트는 'PMC'(감독 김병우)로 도전장을 내민다. 하정우 이선균 주연의 'PMC'는 남북의 감동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을 배경으로, 판문점 아래의 병커에서 진행되는 비밀 작전에 투입된 한국인 용병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하정우는 글로벌 민간군사기업 블랙리저드의 리더 '헤이젤' 역을 맡았다. '더 테러 라이브'에 이어 또 다시 봉천 김병우 감독과 하정우의 시너지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쇼박스에서는 송강호, 조정석의 '마약왕'을 준비했다. 전작 '내부자들'(2016)로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우민호 감독은 이번엔 197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친 마약 유통 사건을 바탕으로 마약계의 최고 권력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남자와,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송강호는 국내 최대의 마약제조 및 유통업자, 조정석은 송강호를 쫓는 검사 역을 맡았다. 지난해 겨울 '신과함께-죄와 벌'로 첫 1300만 흥행을 달성하며 흥행

사를 새로 쓰고 있는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함께2-인과연'으로 이번엔 여름 시장을 노린다. 1부에서 인기를 끈 김동욱의 비중이 늘어나고, 마동석 등 새로운 캐릭터들이 가세했다. 천만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웰메이드 사극의 공습-창궐·조선명탐정3·명당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시대극의 인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장동건, 현빈의 '창궐'(감독 김성훈)은 밤에만 출몰하는 괴물 '야귀'로 위협에 처한 조선의 이야기를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다. 좀비라는 낯선 소재가 시대극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궁금증이 쏠린다. 쇼박스의 '효자 프랜차이즈', '조선명탐정'(감독 김석운) 역시 세 번째 시리즈로 돌아온다. '조선명탐정'은 괴물의 출몰과 함께 일어나는 연쇄 예고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명탐정 김민이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전편에 이어 김명민, 오달수가 출연하며 김지원이 힘을 보탤다.

조승우 지성 문채원 주연의 '명당'도 빼놓을 수 없다. 풍수지리를 소재로 한 '명당'은 '관상'(2013), '공합'을 잇는 역학 3부작의 재미를 장식할 작품이다. 조승우는 풍수를 이용해 세도 정치 세력의 음모와 역모를 밝히려는 조선 최고의 천재 지관 '박재상'으로, 지성은 명당을 이용해 권력을 쥐려는 '홍선군'으로 분했다.



◆ 중견 감독들의 새로운 도전-리틀 포레스트·변산·버닝

국내 관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명감독들은 신선한 작품으로 돌아온다. 먼저 '제보자' 비안해, 고미워 등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은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리틀 포레스트'를 선보인다. 시련에 휘둘러져, 뒤편에 놓여진 것들을 뒤로 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오랜 친구인 재하(류준열)는 은근 진기주와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어둡고 무거운 범죄액션물의 흥수 속



에서 편안하고 휴식 같은 영화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박열'로 성공을 거둔 이준익 감독은 '변산'으로 돌아온다. 무명 래퍼 화수(박정민)가 고향 변산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동창 선미(김고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 이창동 감독은 '시' 이후 8년 만의 신작, '버닝'을 내놓는다. '버닝'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 온 조승우, 변, 해미의 만남과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다. 유아인, 스티븐 연, 신에 전종서가 출연을 확정해 화제를 모았다.

◆ 스타감독들의 아시작-영역·공작·인랑

공작·인랑

'부산행'으로 천만 신화를 쓴 연상호 감독은 이번엔 초능력을 소재로 한 '영역'을 선보인다. '영역'은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평범한 아빠 석현(류승룡)이 위기에 처한 딸 루미(심은경)를 구하기 위해 영역을 펼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류승룡은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된 은행 경비원 석현으로 분했다. 윤종빈 감독의 '공작' 역시 기대작이다. 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한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리얼

첩보극이다. 황정민, 이성민, 조진웅, 주지훈이 출연한다.

김지운 감독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모티브를 따온 '인랑'을 선보인다. 근 미래, 남북한이 7년의 준비기간을 거치는 통일을 선포한 가운데 반동일 무장테러단체 섹트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찰조직인 공안부를 중심으로 그 뒤에 숨은 권력기관 간에 벌어지는 격돌을 그린 SF액션물이다. 강동원, 한효주, 정우성, 김무열이 주연을 맡았다.

◆ 화려한 스케일의 기대작-안시성·독전·7년의 밤

총 215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안시성'(감독 김광석)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안시성'은 고구려 안시성의 성주 양민춘과 당 태종의 대결을 그린 전쟁 블록버스터로 조인성, 남주혁, 박성웅, 배성우, 엄태구, 김철현, 박병은 등이 출연한다. '독전'은 아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을 잡기 위해 펼치는 숨 막히는 압투와 추격을 그린 범죄 액션극이다. 흥행 거장 두치영 감독의 '7년의 밤' 리메이크했다. 조진웅, 류준열을 필두로 신준은, 김재현 등이 기대가 모아진다.

정유정 작가의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7년의 밤'(감독 추창민)도 개봉한다. 세월호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 사건,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게 된 남자 '현수'(류승룡)와 그로 인해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한 남자 '형제'(장동건)의 7년 전의 진실 그리고 7년 후 끝까지 않은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명해, 왕이 된 남자' 추창민 감독의 북극작으로 류승룡, 장동건, 송세벽, 고경표, 문정희 등이 출연한다.

## ‘싱글와이프2’, 시즌1보다 강해진 사연...공감도 더했다



더 강하고, 다양한 아내들의 이야기로 돌아온 '싱글와이프2'가 시청자의 공감대도 더했다.

지난 17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싱글와이프2'는 시즌1보다 더 많은 부부들을 캐스팅, 더 다양한 이야기로 공감의 폭을 넓혔다.

먼저 소개된 부부는 배우 정만식과 그의 아내 린다진. 린다진은 18년간 일본 생활을 하며 일본 예술학 박사 1호에 오른 재원이지만 정만식과 결혼 후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다.

정만식은 제작발표회에서 "린다진이 정만식의 아내가 아닌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방송을 통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실제로도 린다진은 넘치는 재능과 그에 비례하는 자신감으로 여행을 준비했다. 또한 인형과 혼잣말까지 나누는 그의 모습은 독특한 예능 캐릭터의 탄생을 알렸다.

더 큰 반전은 정만식이었다. 어른 덩치와 다소 험악해보이는 인상을 가진 정만식이지만 아내 앞에서는

도도 없는 사랑꾼 남편이었다. 눈만 마주치면 뽀뽀를 하는 이들 부부의 모습에 스튜디오도 핑크빛으로 물들었다.

32년차 MC 김연주는 14년만에 지상파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반가움을 자아냈다. 그는 제작진이 연령대 높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여보고자 섭외한 인물. 시즌1의 최고령자였던 정재은(당시 만 48세)보다 더 높은 53세다.

임백천과의 가정 생활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높은 연령대의 부부가 보이는 일상과 비슷했다.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놀고 있었다. 김연주는 "우리 때는 안 시키는 게 당연했고, 일을 도와줘도 더 안중은 결과가 생기자 보니 내가 하곤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호주로 여행을 떠난 김연주는 누구보다 젊은 감각을 자랑했다. 유창한 영어로 벌써 호주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는 시즌1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활발한 남편일탈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아내는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서경석의 13살 연하 아내 유다솜. 34세지만 벌써 결혼 9년차에 접어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차에 서경석을 만나 결혼한 경력단절 여성이다.

경력과 학업에 대한 아쉬움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이로 인해 둘째를 유산한 것 같다는 죄책감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아머니가 둘째를 원하셔서 계획을 갖게된 중 아

이를 가졌지만 내가 학교를 다니다고 무리를 해서 아이를 잃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 더해 4남매를 키우는 다둥이 엄마인 정성호의 아내 경험담, 한때는 '논스톱 여신'이었던 현재 육아에 몰입한 김정화, 그리고 기러기 부부로 살아가다가 아이에게서 처음으로 떨어져보는 윤상의 아내 심해진까지, 시즌2로 돌아오며 제작진이 가장 신경 쓴 건 캐스팅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가

진 부부와 아내의 모습이 앞으로 '싱글와이프'에 담길 예정이다.

한편 '싱글와이프 시즌2' 첫 방송은 1부 시청률 5.2%, 2부 시청률 6.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라디오스타'(5.8%, 5%)를 제치고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출발이 좋다.

시즌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위화감 조성'이 꼽혔던 만큼, 시즌에서는 공감을 무기로 순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코코’ 어른들에게도 인생영화가 된 이유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디즈니 흥행 불패 신화를 경신한 '코코'의 열기가 뜨겁다.

영화 '코코'는 디즈니·픽사 영화 중 최고 흥행작인 '인사이드 아웃'보다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 돌파를 한 데 이어, 신작 공세에도 겨울방학을 맞은 가족 관객

들의 예매 열풍으로 예매율 폭등을 기록, 개봉작 한국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을 훨씬 웃도는 예매율로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와 함께 외화 ZTOP을 차지하고 있다.

'코코'는 2주 연속 예매권 상위권 유지 및 애니메이션 예매율 2주 연속 1위를 수성해 승승장구 흥행 꽃길을 걸으며 뜨거운 주말

돌풍을 예고한다.

전체관람가 '코코'는 성인부터 아이들까지 전 세대 관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몽글몽글 감동과 환호하는 즐거움을 주는 명작으로 입소문 흥행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

한편 '코코'는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황홀하고 기묘한 모험을 그린 디즈니·픽사 작품이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음력 12월 3일)



▶**띠띠** 포용력이 있어 아무 곳에 가더라도 대접을 받는다. 사업에도 빛이 보이니 미래에 웃음소리가 들리겠다. 자녀 문제로 고심할 수 있으나 2, 3, 8월생은 북쪽 사람과 상의하라. 1, 7, 10월생 투자는 금물.



▶**띠띠** 부모, 자녀로 인해 신경 쓰다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겠다.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용, 양, 소띠에게 신경이 쓰인다. 공든 탑이 무너질 듯.



▶**띠띠** 혼인이 늦어진 노총각, 노처녀에게 경사가 있겠다. 행운을 잡아라. 친구의 도움으로 짝이 생길 듯. 동, 북쪽 여행은 길하며 소, 용, 돼지띠 부부는 더욱더 행복을 유지하나 철재계 투자가 좋겠다.



▶**띠띠** 자기와 싸워 이기려 허영심만 버리면 이익이 된다. 가족에 대해 가진 불만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격이다. 원한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을 듯. 증권 투자는 어느 정도 이익이 될 듯.



▶**띠띠** 용기가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어 잘 돼 갈 일에도 망설이고 있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라. 오늘보다 내일의 희망으로 일을 착수하라. 생각보다 진행이 빠를 것이다. 북쪽 그, 나, 자성씨가 도움 줄 듯.



▶**띠띠** 주인이 아니면서 책임감이나 충성심을 갖고 임해도 모자란 처지다. 지금 시선을 뒤돌아보라. 준비도 없는 변동 따위는 자살 행위다.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아라. 2, 3, 6월생 화근이 뒤따른다.



▶**띠띠** 좋은 일에 방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비밀을 굳게 지키고 항상 경계함으로써 임하라. 먼길을 떠나면 내일 출근에 지장이 클 것이다. 구설수가 있으니 매사 조심하라. 말, 닭, 범띠가 도움도 주고 기쁨도 준다.



▶**띠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한다. 미운사람 딱 하나 더 준다는 자세로 임하라. 금전의 욕심은 화를 부른다. 생각지도 않던 사람의 출연에 삼각 관계가 연루될 듯.



▶**띠띠** 상대가 강하게 나와도 성급함을 자제하고 서서히 지혜롭게 대항하라. 누구나 지혜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니 협조 부탁하라. 7, 8, 9월생 노란색을 삼갈 것.



▶**띠띠** 연인과 사랑의 줄다리기는 이제 중단하라. 오늘 줄다리가 끊어질 수. 배짱도 한 두 번이다. 상대방 자존심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할 날이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든 탑 무너질까 염려될 듯. 쥐, 말, 돼지띠를 경계하라.



▶**띠띠** 행동이 느린 것이 단점이나 항상 착한 마음이니 실수를 모면하겠다. 여행을 떠나도 멀리 가지 마라. 건강에 유의하고 특히 소화기 계통을 조심할 것. 금전 관계에 신경 써야 할 때다. 한 번에 큰 지출이 나갈 수.



▶**띠띠** 인내가 필요하다. 무언고에 떨어뜨도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직장 사람이나 사랑하는 이와 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번 약속을 못 지키면 곤란하게 될 듯.